



미 재무부, 대형 금융기관에 수수료 부과할 계획

채원영 연구원

- 미 재무부는 최근 설립된 금융안정 감시기구와 Dodd-Frank 법안 점검에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대형 금융기관에 부과할 계획임.
 - 미 재무부는 총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미국 은행 지주회사와 외국계 은행 및 Fed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반기별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.
 - 총 수수료 수입은 연간 1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나 FY2013 예산안에 포함된 비용과 각 회사들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 - 이 수수료는 FSOC 운영비용 일부, FDIC의 강제정리권한 실행과 관련된 비용 등을 충당하는데 쓰일 것임.

- 미 재무부는 최종 법안을 2012년 5월 말에 발표하고 6월 중에 수수료 부과율을 발표할 예정임.
 - 입법안은 60일 동안 www.regulations.gov에 게시되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임.
 - 미 재무부는 어떤 종류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Fed의 감독을 받을 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, 수수료율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지를 추가적으로 결정해 2012년 5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임.

(WSJ, Bloomberg 등, 12/30)